

다케우치 가문 주택은 에도시대(1603-1867년) 말기에 아와가마치에 집을 지은 거상 일가이자 지역 명사이기도 했습니다. 이 저택은 마을에 에도시대부터 남아있는 두 개의 건물 중 하나입니다. 저택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방은 차와 간장, 술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. 그중에서도 '센레이차'라고 불리는 녹차는 명물 상품으로 교토의 어떤 절에도 전해져 평판이 자자했습니다. 이 센레이차는 지금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, 센레이차를 이용해 만든 과자도 인기가 많습니다. 저택 뒤쪽에는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4개의 창고가 늘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남아있습니다. 에도시대의 관습에 따라 집 중앙에 있는 방에 불상이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.